

지역 소식 통

고창군, 계약서류 간소화
행정 효율성 높여

고창군이 내년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 업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 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행 계약 방식은 소액 계약의 경우에도 10여종의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활용해 서류 1종만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서약서 안에 담아 그간 업체가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각종 행정서류를 계약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나라장터, 문서24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에서 청구까지 방문 없이 전자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속도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도시농업연구회
김장김치로 따뜻한 나눔

정읍시 도시농업연구회(회장 김영구)는 3일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배추와 무로 담은 김장김치 5kg 100상자(295만 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도시농업연구회는 시민들의 농업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농업을 활용한 도시공동체 운동과 사회복지, 교육활동 등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관리사 과정을 통해 운영 중인 도시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며 지역 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영구 회장은 "회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가꾼 채소가 훌륭한 음식으로 만들어져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도시농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적극행정 · 협업 우수사례 선정

부안군, 군민 우선주의 행정... 농업정책과 이채희 주무관 등 6명 영예

부안군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군민우선주의 행정을 펼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우수 2, 장려 4)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들이 기존의 소극적이고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 협업 우수사례 38건 중 실무심사를 거쳐 6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통해 군민 우선주의 행정을 위해 노력한 우수공무원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심사 결과 농업정책과 이채희 주무

관의 '보조지원 농기계 QR 하나로 간편하게 관리해요' 사례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이지석 주무관의 '농기계 임대 모바일 활용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채희 주무관의 사례는 농기계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QR 코드 부착만으로 위치기반 점검 가능한 모바일 앱 자체 개발하여, 점검 절차 간소화와 개발비 절감으로 군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을 손수 구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이지석 주무관은 농기계 임대 과정 시 모바일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서 작성 시간 절감 및 농번기 빠른 출고를 도모하여 임대사업소 운영 효율성과 농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모바일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계약 방법을 이원화하여 서명 간소화 계약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이어서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 양식업 운영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무관과 협업을 통한 주산면 신원천 인근 상습침수 해소 방안을 마련한 상하수도사업소 김선평 주무관 관내 수초자 증가에 따른 수소충전소 이용객 편의 증진방안을 마련한 TALK! 소리나는 수소행정을 추진한 지역경제과 김혜연 주무관과 LPG관매입 위기 속 대비 같은 지원정책을 추진한 지역경제과 이미경 에너지팀장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부안군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한 마을 현장포럼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민주도형 마을 현장포럼 성료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부안군 12개 마을(△부안읍 모산, △주산면 신공, △주산면 신성, △동진면 신월, △행안면 마동, △계화면 창북3, △보안면 만회, △백산면 신금, △용곡, △신평, △상서면 노작)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한 마을 현장포럼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을 현장포럼이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마을 만들기의 기초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현장포럼은 지난 9월부터 11월 까지 마을별 4회차로 구성하여 공동체 만들기 이해 교육, 마을 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진단 및 과제 도출, 현장교 육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위해 함께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현장포럼에 참여한 한 마을은 마을 활성화를 위해 “쉬어가는 평온한 마을”을 테마로 정하고 마을 입구에 쌓여 있는 방치된 퇴비와 농기계 등을 정리하는 등 그간 지저분했던 마을의 환경개선을 통해 누구나 쉬어가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실천과제로 도출하였다.

마을 주민은 “현장포럼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고 주민들이 함께 마을 발전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지속적인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백일해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 총력 대응

정읍시, 소아 · 청소년 · 고위험군 중심 예방수칙 홍보 · 감시체계 강화

정읍시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응해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소아 · 청소년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면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된다.

특히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시 보건소는 적기 예방접종(생후 2-4개월) 및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고위험군과 전파위험 집단 감염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임신 3기

(27~36주) 임신부의 예방접종도 적극 홍보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 수는 3만2,620명(11월 28일 기준)으로 지난해 292명 대비 약 11배 증가했다. 정읍에서도 2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북 전체적으로는 1063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경우, 지난 6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45주 기준 전국 입원 환자 수는 2만8,625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9배 증가했으며, 전북에서는 1444명, 정읍에서는 217명이 발생했다. 이 질환은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초기 증상 외에도 피부 홍반 관절염 등 심

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손 씻기, 개인위생 관리, 기침 예절 준수, 주기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다. 또한,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뢰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아 ·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비해 홍보와 면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맞춤형 민원환경 인정받다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 현판을 게시하며 본격적인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서비스 품질, 체류 기회, 만족도를 기준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는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4개 분야 7개 지표 25



개 항목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부여됐다. 시는 이로써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앞서 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

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자동문 교체와 안내데스크 신설 등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 복사기, 인바디 등의 편의시설과 테마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인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었다.

이화수 시장은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선정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7대 명예청년군수 김진수씨 위촉

고창군이 3일 '제7대 일일 명예 청년군수'로 김진수(30, 성두과학문구 부사장)씨를 위촉했다.

명예 청년군수 제도는 분기별 1명씩 위촉, 청년들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 청년들의 시각과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7대 명예 청년군수로 위촉된 김진수씨는 고창군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군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김진수 명예 청년군수는 군수실에서 위촉패를 수여 받은 후, 업무보고 및 결재체함을 진행했다.

이어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직인과의 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정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생8기 주요사업인 신활력산업단지 현장에서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진수 명예 청년군수는 “고창의 소상공인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명예 청년군수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는 소통의 창구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